1. 김진명 : 통계학 전공자답게 데이터 분석에 탁월한 전문성을 자랑하는 팀원입니다. 빅데이터 프로젝트 당시 우리 프로젝트의 분석의 질을 높이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AI프로젝트 진행과 취업 전형 기간이 계속해서 겹쳤음에도 자신이 맡은 태스크를 책임감 있게 수행했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프로젝트의 진척에 신경쓰느라 놓친 행정적 처리 등을 잊지 않고 챙기며 조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2. 김한빈 : 분야를 가리지 않는 지식과 통찰, 판단력으로 두 차례의 팀 프로젝트 방향성 설정과 진행 전반에 주축 역할을 한 팀원입니다. 다른 팀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잡아내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술적 역량과 지식탐구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과제 수행의 전반적인 맥락 파악에도 뛰어나 어떠한 분야에서도 유능한 전문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경원 : 본인이 맡은 태스크가 무엇이든 그것을 끈기 있게, 또 요령 있게 수행할 줄 아는 팀원입니다. 성실함과 꼼꼼함, 여러 차례의 협업 경험으로 쌓아온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제해결력, 그리고 본 과정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까지 합쳐져 프로젝트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왔습니다. 또 팀원들이 지칠 때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주었으며, 유려한 발표자료 제작에 가장 크게 기여한 팀원입니다.
4. 이다연 : 본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준 팀원입니다. 첫 주 파이썬 코딩 수업 당시 가장 힘들어하던 교육생 중 한 명이었으나, 후반 AI 프로젝트에서는 핵심 기능인 pose estimation 모델을 구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 즈음에는 기술적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는 팀원 중 한명이 되기도 하며, 스스로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5. 이상엽 : 팀 내 유일한 컴퓨터공학 전공자로, 비전공자들이 단시간 내 익히기 힘든 개발은 맡아 하면서도 다른 팀원들의 능력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으며 팀원들의 컴퓨팅 역량 발전을 이끌어준 ‘기술적 자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개발 역량은 물론이고 비전공자와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업 능력도 뛰어나 프로젝트 진행 전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